



# 연간 보고서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18년



##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 ACN은 지난해 5,000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ACN이 2년마다 조사하여 발행하는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 2018년판은 그 어느 때보다 즉각적인 미디어의 반응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가 종교 자유의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영감을 갖도록 촉매가 되어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모두가 “평화의 장인”

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평화의 장인이 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은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박해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현실적인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희 ACN은 자비로운 후원자 여러분과 헌신적인 직원들 그리고 동료들의 노력을 합쳐, 궁극적으로 모두 함께 평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자 부활절 동안 복음 말씀에서 되풀이된 주제였던 바로 그 평화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ACN의 후원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는 한 인제까지나, ACN은 앞으로도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가톨릭 사목 원조 재단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계속하여 이어나갈 것입니다.

모든 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을 빕니다.



**ACN 국제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 여러분의 사랑은 다음과 같이 전달되었습니다

## ♥ 성전 건립 및 재건 지원 2,470건

성당, 경당, 수도원, 신학교, 피정의 집 등을 짓는 데 재정 지원했습니다. 또한, 이라크와 시리아 출신 그리스도인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하고 재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 ♥ 미사 예물 1,421,001차례

미사 140만여 대, 즉 2018년 한 해동안 22초마다 ACN 후원자 여러분의 지향이 담긴 미사가 한 대씩 봉헌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87개국의 사제 40,569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성적,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주로 인도, 우크라이나,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베네수엘라의 사제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 ♥ 신학생 11,817명 양성 지원

전 세계 모든 신학생을 통틀어 10명 중 1명이 ACN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5,600명으로 가장 많은 신학생들이 지원받은 곳이며 아시아 2,391명, 남미 2,375명이 그 뒤를 잇습니다. 이 신학생들의 양성에서 인간 내면의 성숙과 영성 분야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 ♥ 수녀 11,046명 생계 및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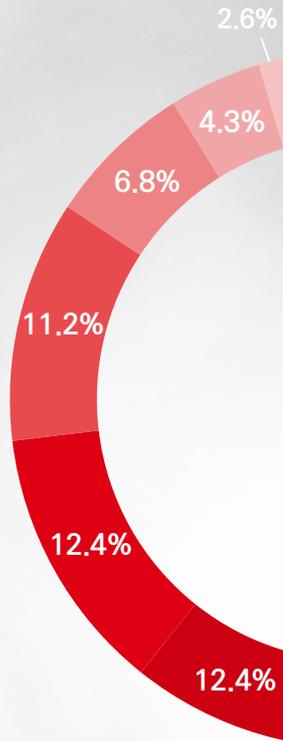
전 세계 수녀 60명 중 1명이 사도직 수행 또는 훈련과 관련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녀들의 양성 및 연학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 사목 활동을 위한 운송 수단 지원 90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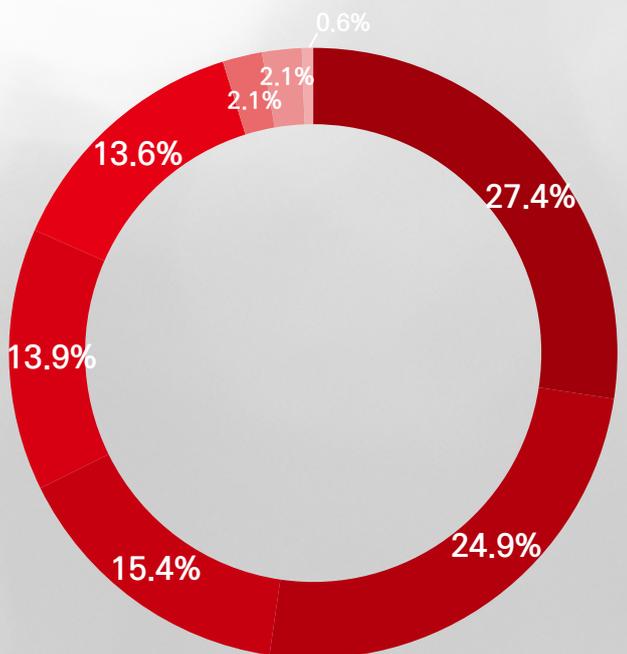
자동차 370대, 오토바이 189대, 자전거 342대, 트럭 2대, 미니버스 2대, 배 2척을 지원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우크라이나, 인도, 벨라루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 지원 사업 별 예산 비율

- 성전 건립 및 재건 지원 31.9%
- 미사 예물 16.4%
- 긴급 구호 지원 12.4%
- 사제 및 수도자 양성 지원 12.4%
- 평신도 신앙 교육 지원 11.2%
- 사목 활동을 위한 운송 수단 6.8%
- 수도자 생계 지원 4.3%
- 복음 전파를 위한 미디어 지원 2.6%
- 성경 및 종교 서적 지원 2.0%



## 지역 별 지원 사업 비율



# 2018년 한 해 동안 총 5,019건의 사업 지원

작년 한 해동안 ACN에 들어온 사업 지원 신청건은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하여 총 7,607건이었습니다. ACN은 그중에서 2,089건을 반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별 평균 지원 금액은 15,053유로(약 1970만 원)였으며, 전 세계 139개국에서 1,160개의 교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교리교사 14,000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특히 남미와 아시아에서 지원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종교 서적을 100만 부 이상 배포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성전 건립 등과 같은 건설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진행된 재건 사업으로 인해 지원 사례를 건수로 따지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 숫자로 보는 결과

- ◆ 전 세계 **23개국**에  
모금 활동을 위한 지부 운영
- ◆ 전체 후원자 **33만 명** 이상
- ◆ 기부, 유산 증여 등을 통한 총 수입  
111,108,825유로(약 **1459억 원**)
- ◆ 280만 유로(약 **36억 원**) 이상의 차액이  
이전년도에서 이월되어 2018년에 사용
- ◆ 전 세계 **139개국**의 파트너들과 사업 협력
- ◆ 2018년 총 **5,019개**의 지원 사업 승인
- ◆ 전체 예산의 **80.1%**가 사목 활동과 연계

ACN의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서 함께 주신 덕분에 2018년에 총 1억 1050만 유로(약 1451억 원)를 전체 지출 예산으로 할당할 수 있었습니다.\*

ACN은 2018년 지출 예산의 80.1%를 사목 활동과 연계된 곳, 특히 사업 지원과 정보, 미디어 및 영성 활동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필수 지출 내역인 운영비와 홍보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운영비 8.5%, 홍보 및 모금 활동 예산 11.4%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밖에 종교 관련 서적과 기사들을 출판하는 자체 사업에 340만 유로(약 44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 아프리카 27.4%
- 중동 24.9%
- 아시아 15.4%
- 남미 13.9%
- 중유럽 및 동유럽 13.6%
- 서유럽 2.1%
- 국제적 2.1%
- 오세아니아 0.6%

## 전체 예산 중 사용 내역

- 사목 활동 연계 80.1%
- 운영(관리) 8.5%
- 홍보 및 모금 활동 11.4%



## 사목 활동 연계 지출 비율

- 사업 지원 85.3%
- 정보, 복음화, 지지 활동 14.7%



ACN은 2018년에 139개국에서 5,019건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의 총액은 7550만 유로(약 991억 원)입니다. 이 외에 박해받고 고통받는 교회의 상황을 알리고, 현 시대의 순교자들과 이들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정치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를 위해 발언하고 지지하는 활동 등에 1300만 유로(약 170억 원)를 사용했습니다.

1년 중 가장 변동이 큰 유산 증여는 이전년도에 비해 1170만 유로(약 153억 원) 감소하여 지원 사업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부금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CN 연간 보고서는 국제 본부 및 23개국 지부에서 보고된 자료를 취합한 것이며 KPMG로부터 감사와 검토를 받았습니다.

(환율: 1유로=1313.86원)

## 그 어느 때보다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지원이 2018년도 전체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을 점점 더 필요로 하며, ACN이 직접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ACN은 지난해 시리아와 이라크에만 1510만 유로(약 198억 원)를 지급해 크고 작은 규모의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 전체 중동 지역 지원금은 1810만 유로(약 237억 원)로 총 지원금의 25%에 해당하는데, 가장 많은 지원금인 2000만 유로(약 262억 원)를 지급한 아프리카 지역의 27%

와 비슷한 비율입니다. 주로 이라크 그리스도인 난민들의 교향집을 수리하고 재건하거나 시리아에 긴급 구호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지역 다음으로는 국가별로 인도(520만 유로), 우크라이나(330만 유로), 콩고민주공화국(290만 유로), 브라질(270만 유로)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밖에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에서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중동 지역, 특히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ACN의 원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날 시리아 형제자매들의 상황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나쁩니다. 비록 싸움이 가라앉고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기초 구조물은 파괴되고 병원의 기본 장비와 의약품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형 원조 단체들은 철수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중동 교회 말고도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 분과의 활동으로 가톨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와 남미 교회에도 교리의 사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